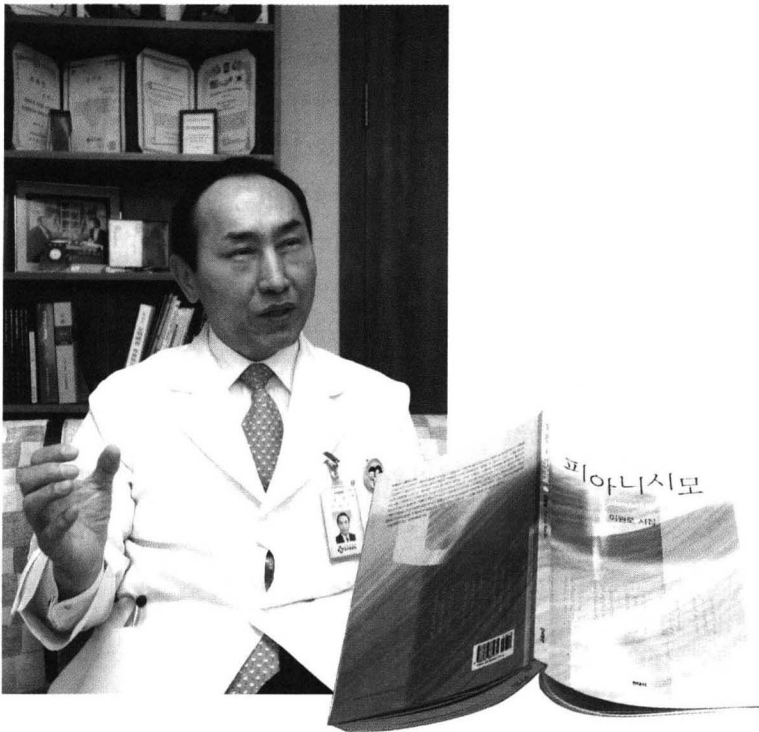


오른팔엔 의술을, 왼팔엔 문학을

가장 소중한 책은 《성경》 책은 세상과 소통하는 마음의 창 다섯 번째 시집 《피아니시모》 출간



눈을 감고 마음을 기울이자/활짝 핀 꽃잎에 부너지는/
봄비의 피아니시모 속으로/봄비 속에 피는 꽃들의 희망이/
축복의 응답을 세상에 불러와/오늘을 영원 속에 동여매어놓네
- 《피아니시모》 중에서

“가장 큰 감동은 가장 적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법”이라고, 〈피아니시모〉의 함의를 설명하는 일산 백병원 이원로(李元魯, 69) 원장. 각박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을 터. 절망의 나라까지 떨어진 사람만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하고 빛나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이 원장을 ‘국내외에서 유명한 심장질환 분야의 명의이자 시인’이라기보다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고뇌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다. 고회를 앞둔 이 원장은 44년째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생사를 지켜본 사람이다. 고통으로 부대낀 상처 난 삶이 문학을 낳고, 문학이 그 상처를 치유하듯 오른팔엔 의술을, 왼팔엔 문학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가장 소중한 책은 《성경》

픽션과 논픽션 분야로 나눠 읽는다

이 원장이 다녔던 중고등학교 시절은 경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부릴 시대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중이라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책을 접하는 기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원장이 맘 놓고 책을 풍부하게 접한 시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이다. 2년간 문학, 철학, 음악 등을 수강하는 예과과정을 자유롭게 청강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습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 원장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심장학 교수로 있을 때 〈월간 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책은 《성경》이라 한다. “성경은 그 자체로 시입니다. 1장 1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구절은 표현하는 내용이나 함축한 의미도 심오하지요.”

일주일에 책 한두 권을 읽는 것은 이 원장 독서생활의 기본이다. 픽션과 논픽션을 조화롭게 읽는다고 한다. 신문과 잡지 〈TIME〉에서 소개하는 신간이나 서평을 참조해 책을 고르는데, 병원 경영자로서 경영 관련 책은 단연 필수이다. 잭 웰치, 스티븐 잡스의 저서들은 빼놓지 않고 읽는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 경영

자이든 정치가든 음악가든 모든 길의 원리는 같다고 봐요.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첼로를 연주했는데, 유명한 음악가들과 함께 실내악을 연주하기도 했지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과연 음악의 대가들과 연주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뭘 하든지 통하게 마련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씨네의 형제들》, 허먼 멜빌의 《백경》, 조셉 콘래드의 《로드짐》 《나르시스호의 흑인》, 생텍쥐베리의 《어린왕자》 등 문학작품들은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쌓은 고전들이다.

내가 좋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수는 없는 법. 이 원장은 다른 이들에게 책읽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의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스타일이다. 모든 것이 자유롭게 흘러야만 업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경영지론이자 삶의 철학이다.

“흔히 혁신이 있어야 발전한다고 하죠. 그 혁신의 기초는 자율입니다. 억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는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모여 있는 만큼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봐요.”

시작(詩作)은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의학과 문학은 닮은 구석이 많아

이 원장은 등단 이후 《빛과 소리를 넘어》 《햇빛 유난한 날에》 《청진기와 망원경》 《팬터마임》 시집을 출간했고, 올해 8월에는 다섯 번째 시집 《피아니시모》를 내놓았다. 그에게 있어 시작(詩作)은 자기완성의 과정이며, 의학과 문학은 닮은 구석이 많은 형제와 같다.

“의학은 문학과는 달리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결정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죠. 문학은 단순히 감성만의 문제가 아님

니다. 감성에서 나오는 단상을 정리하고 작품화시키는 과정은 의학처럼 과학적인 작업이 요구돼요. 근본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신비로움을 벗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지요.”

이 원장이 시를 쓰는 과정은 일시적이 아니라 생활이다. 이미지가 떠오르면 즉시 습작노트에 옮긴다. 그가 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주말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는 차안이 한 편의 시를 생산하는 시공간이다. 스러져가는 숨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의사로서의 삶, 그들을 치유하는 시인으로서의 삶, 고통과 죽음에 맞닥뜨린 인간의 여러 풍경이 탄생한다.

책을 읽지 않으면 창 없는 방에서 사는 꼴

그는 소설 속에서도 시의 재료를 찾아낸다. 그래서 책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다. 책은 자기의 거울이고 마음의 창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작가와 독자가 교통하는 도구입니다. 책은 마음의 창과 같아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바깥세상을 볼 수 있고, 때로는 더 멀리 볼 수 혜안을 가지게 되지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책을 읽지 않으면 창 없는 방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책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참 묘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부분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 99%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고, 나머지 1%가 미스터리입니다. 1%에 속하는 예술가는 99%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 1%에 99%의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람 내부에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작가는 작품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원장의 아내 신경자 씨는 같은 병원 산부인과 의사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대를 나와 서울대학교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이 원장을 만나 결혼했다. 습작시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아내이다.

“독자 입장에서 봐주니까 큰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비평해 주다가 종종 다투기도 하죠.” (웃음)

이 원장은 시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내린 적이 없다. 문학이라는 단어에 가슴 설레던 문학청년으로 살면서 자연스레 시와 함께 흘러온 인생이다. 자신의 상처를 씻고자,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시를 쓰지 않는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출렁대는 고통으로 아파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삶이 시를 낳게 하는 동인이다. 그들을 위해 썼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는 읽고, 응시하고, 쓴다. **◆**

취재 정은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